

쿠산 왕조와 대승 불교, 간다라 미술

교과서를 읽다가 막히는 질문 13가지

이 단원의 질문

같은 불교인데 왜 ‘상좌부’와 ‘대승’이라는 다른 이름이 나올까요? 인도에서 생긴 불교의 조각에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 보이는 까닭도, 사람과 문화가 오간 길에서 찾을 수 있어요.

-
- Q01** 쿠산 왕조는 언제, 어디에 있었나요?
-
- Q02** 쿠산 왕조는 왜 동서 교역의 길목이라고 하나요?
-
- Q03** 카니슈카왕은 대승 불교를 만든 사람인가요?
-
- Q04** 대승 불교는 왜 ‘큰 수레’라는 이름을 썼나요?
-
- Q05** 보살은 어떤 존재이고, 왜 중요해졌나요?
-
- Q06** 상좌부 불교에는 남을 돕는 가르침이 없나요?
-
- Q07**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어떻게 나타냈나요?
-
- Q08** 사람 모습의 불상은 대승 불교 때문에 생겼나요?
-
- Q09** 간다라에 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었나요?
-
- Q10** 간다라 불상에서는 어떤 문화가 만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
- Q11** 대승 불교는 어떻게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졌나요?
-
- Q12** 한국의 불상은 간다라 불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가요?
-
- Q13** 쿠산 왕조가 쇠퇴하면 불교와 불교 미술도 함께 사라지나요?
-

Q01 쿠산 왕조는 언제, 어디에 있었나요?

답

쿠산 왕조는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한 세력이 인도 서북부와 북부까지 지배한 왕조로, 기원후 2세기 카니슈카왕 때 전성기를 맞았어요.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운데에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인도 서북부는 인도 지역의 북쪽과 서쪽이 만나는 쪽을 말해요. 쿠산 왕조의 영역에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과 인도 북부의 일부 등이 포함되었어요. 옛 왕조의 경계가 오늘날 나라의 국경과 같았던 것은 아니에요.

쿠산 왕조는 아소카왕이 불교를 후원했던 마우리아 왕조와 다른 왕조예요.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진 뒤 여러 세력이 활동했고, 그보다 뒤인 1세기 무렵 쿠산 왕조가 성장했어요. 기원전 3세기의 아소카왕과 기원후 2세기의 카니슈카왕 사이에는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두 왕조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 둘 다 인도의 역사와 불교의 발전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소카왕 다음 왕이 곧 카니슈카왕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Q02 쿠산 왕조는 왜 동서 교역의 길목이라고 하나요?

답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북부를 잇는 길을 차지하여, 동쪽의 중국과 서쪽의 로마 세계까지 이어지는 교역망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교역은 지역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에요. 쿠산 왕조가 차지한 지역에는 산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과 인도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났어요. 교통의 요충지란 이처럼 여러 길이 이어져 이동과 교역에서 중요한 곳을 말해요.

이 교역망에는 비단길과 바닷길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단길은 중국과 서쪽 지역들을 이어 준 여러 교역로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비단만 오간 길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뻗은 도로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상인이 가져온 천을 다른 지역의 상인이 사서 다시 먼 곳에 팔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물건은 여러 사람과 지역을 거쳐 이동했어요. 쿠산이 중국과 로마를 모두 정복했거나, 한 상인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늘 직접 오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쿠산 왕조 시대 교역로의 장터를 나타낸 상상도예요. 짐을 실은 낙타와 천 꾸러미, 그릇은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 줘요. 여러 지역의 물건은 이런 만남을 거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특정 도시의 실제 장면을 복원한 그림은 아니예요.

Q03 카니슈카왕은 대승 불교를 만든 사람인가요?

답

아니예요. 카니슈카왕은 불교를 후원한 쿠산 왕조의 왕이며, 대승 불교의 발전을 도운 인물로 배워요.

후원은 어떤 활동이 이어지도록 돈이나 물건, 장소 등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승려가 머물 사원과 가르침을 배우고 전할 여건이 마련되면 불교 활동이 이어지기 쉬워요. 카니슈카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그의 시대에는 불교 미술도 발달했어요.

불교 전통에서는 카니슈카왕 때에도 승려들이 모여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을 정리했다고 전해요. 이렇게 승려들이 모여 가르침을 정리하는 일을 결집이라고 해요.

왕이 종교를 후원했다는 말과 그 종교의 가르침을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달라요. 대승 불교는 여러 불교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흐름이에요. 카니슈카왕이 어느 날 새 종교를 만들어 백성에게 내려 준 것은 아니예요.

또 왕의 후원만으로 불교가 퍼진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을 전한 승려, 사원을 도운 신자와 상인,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 사람들의 활동이 함께 있었어요. ‘카니슈카왕의 후원’은 이 활동을 도운 중요한 조건이에요.

Q04 대승 불교는 왜 ‘큰 수레’라는 이름을 썼나요?

답

많은 중생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뜻을 ‘큰 수레’에 빗대었기 때문이에요.

대승의 ‘대’는 크다는 뜻이고, ‘승’은 타고 가는 수레를 뜻해요. 실제로 큰 수레를 타고 다니는 불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존재를 함께 태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데려간다는 비유예요.

중생은 사람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여러 존재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예요. 구제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 구제’는 자기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존재들도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말이에요. 해탈은 집착과 괴로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윤회는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일도 남을 돕는 실천이에요.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구제는 당장의 어려움을 돕는 것에 더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뜻까지 담고 있어요. 이 생각은 다음 질문의 ‘보살’과 이어져요.

Q05 보살은 어떤 존재이고, 왜 중요해졌나요?

답

대승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다른 중생의 구제도 돕는 존재로,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어요.

불교에서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뜻해요. ‘보살’은 원래 깨달음을 얻기 전의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데에도 쓰였던 말이에요. 대승 불교에서는 자신도 깨달음을 구하면서 다른 중생을 돕는 보살의 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살의 모습에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들어 있어요. 지혜는 괴로움이 생기는 까닭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자비는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살 사상은 ‘나의 깨달음’과 ‘다른 존재를 돕는 일’을 함께 추구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본받으려 했고, 관음보살(중생의 괴로움을 살피 돕는다고 믿어진 보살) 같은 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보살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행동과 수행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승 불교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누고, 마음과 행동을 닦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요.

Q06 상좌부 불교에는 남을 돕는 가르침이 없나요?

답

아니에요. 상좌부 불교도 자비와 나눔을 중요하게 여겨요. 두 흐름의 차이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있어요.

상좌부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어 온 가르침과 계율,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의 한 흐름이에요. 계율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이에요. 교과서는 상좌부 불교의 특징을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중시한다는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개인’은 남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좌부 불교에서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음식을 나누고, 승려와 신자가 서로 돕는 일이 중요해요.

대승 불교는 보살의 길과 중생 구제를 강조해요. 하지만 대승 불교에도 수행과 계율이 있어요. 두 흐름을 ‘상좌부는 나만 생각하고, 대승은 남만 생각한다’고 나누면 둘 다 잘못 이해하게 돼요.

교과서에서 비교하는 점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주로 강조하는 특징	계율과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	보살의 길과 중생 구제
대표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이 표는 대표적인 특징과 지역을 간추린 것이에요. 한 지역에 불교의 한 흐름만 있었거나, 두 흐름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승 불교’라는 표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말에는 다른 흐름을 낮추어 보는 뜻이 담길 수 있어, 여기서는 ‘상좌부 불교’라고 써요. 상좌부가 글자 그대로 ‘작은 수레’라는 뜻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상좌’는 어른 승려를 뜻하며, 상좌부는 그 승려들이 이어 온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름이에요.

Q07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어떻게 나타냈나요?

답

초기 불교 미술에는 부처를 사람 모습으로 조각하는 대신, 보리수·발자국·법륜 같은 상징으로 나타낸 사례가 많아요.

상징은 어떤 대상이나 뜻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나무예요. 부처의 발자국은 부처가 남긴 자취를 떠올리게 해요. 법륜은 바퀴 모양으로 나타낸 불교의 가르침을 뜻해요.

따라서 사람 모습의 부처가 없다고 해서 불교 미술이나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탑과 여러 상징을 통해 부처를 기리고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다만 초기의 모든 불교인이 불상 제작을 금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남아 있는 미술에서 상징 표현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과,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금지 규칙이 있었다는 주장은 달라요. 이후 사람 모습의 불상이 발달한 뒤에도 상징 표현은 계속 쓰였어요.

Q08 사람 모습의 불상은 대승 불교 때문에 생겼나요?

답

대승 불교의 발전과 불상 제작은 관련이 있지만, 불상이 생긴 까닭을 대승 불교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부처와 보살을 기리고 예배하려는 신앙이 커지면, 그 모습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조각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어요. 여기에 왕과 신자의 후원, 조각을 만드는 장인의 기술과 지역의 미술 전통이 함께 작용했어요. 장인은 물건이나 작품을 만드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예요.

쿠산 왕조 시대에는 간다라와 마투라 등에서 사람 모습의 불상이 발달했어요. 간다라는 오늘날 파키스탄 서북부와 그 주변에 걸친 옛 지역이고, 마투라는 인도 북부의 도시예요. 간다라에서는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이, 마투라에서는 인도의 조각 전통이 두드러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인 한 사람이 불상을 처음 발명했다거나, 모든 불상이 간다라 한곳에서만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불상을 사용하는 불교가 모두 대승 불교인 것도 아니에요. 상좌부 불교에서도 불상을 기리고 예배해요.

답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뒤 그리스계 사람들이 정착하고 여러 지역과 교류하면서, 그리스 계통의 미술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4세기에 원정을 벌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 서북부까지 나아갔어요. 그 뒤 여러 지역에 그리스계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리스계 왕국들도 들어섰어요. 왕이나 군대가 떠났다고 사람들이 익힌 언어와 기술, 미술 표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그리스 문화가 서아시아 등의 여러 지역 문화와 만나 형성된 문화를 말해요. 간다라는 이런 영향을 받은 지역이면서, 상인과 장인, 종교인들이 오가는 길목이기도 했어요. 뒤에는 로마 세계와 이어지는 교류도 더해졌어요.

이곳의 장인들은 불교의 부처와 이야기를 조각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어 온 표현을 활용했어요. 이것이 간다라 미술을 동서 문화 교류와 연결하는 까닭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불상을 직접 만들게 했거나 카니슈카왕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답

인도의 불교 신앙과 그리스·로마 계통의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조각 표현이 만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술에서 양식은 작품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방식이나 특징을 말해요. 간다라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입체적으로 나타낸 얼굴과 몸,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깊은 옷 주름이에요. 물결치는 듯한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작품도 있어요.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말은 얼굴과 몸의 굴곡이나 천의 접힌 모양을 실제처럼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석가모니를 직접 보고 똑같이 조각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불상은 신앙 속에서 생각한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만드는 작업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장인 옆 불상에는 입체적인 얼굴과 몸, 깊게 접힌 옷 주름이 표현되어 있어요. 불교의 부처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을 활용한 모습을 보여 줘요. 특정 유물을 그대로 옮긴 그림이나 실제 작업 현장을 복원한 그림은 아니예요.

그리스 계통의 표현이 보인다고 해서 이 불상이 그리스 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예요. 작품이 담은 대상은 불교의 부처이고, 그 대상을 나타내는 방식에 여러 미술 전통이 함께 들어간 것이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모습을 이루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해요.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 미술이 인도 미술보다 우수해서 대신 들어선 결과가 아니예요. 지역 장인들이 받아들인 표현을 불교 신앙에 맞게 활용하여 새로운 미술을 만든 사례예요.

Q11 대승 불교는 어떻게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졌나요?

답

승려와 상인 등이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고, 각 지역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후원하면서 전해졌어요.

쿠산 왕조가 차지한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로는 불교가 동쪽으로 퍼지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었어요.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에는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어요. 이동하던 사람들은 이런 도시에서 쉬어 가며 물건뿐 아니라 이야기와 신앙도 접할 수 있었어요.

승려들은 불경을 전하고 가르침을 설명했어요. 불경은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에요. 상인과 신자들은 이동과 사원 활동을 돕기도 했어요. 다른 말을 쓰는 지역에서는 경전을 번역하는 일도 중요했어요. 번역은 한 언어로 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에요.

교과서가 대표적인 전파 흐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인도 지역 → 중앙아시아 → 중국 → 한반도 → 일본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큰 흐름이에요. 한 승려가 이 지역들을 한 번에 차례로 돌았거나, 쿠산 왕조가 이 지역을 모두 정복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갔고 바닷길도 이용했어요.

가르침이 도착한 뒤에는 그곳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원과 승려를 돕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왕의 후원과 교역로뿐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수용이 함께 있어야 종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어요.

Q12 한국의 불상은 간다라 불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가요?

답

아니에요. 불교 미술은 여러 지역을 거쳐 전해지면서 그곳의 재료·기술·표현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불교가 전해질 때는 가르침뿐 아니라 부처와 보살을 나타내는 방법도 함께 전해졌어요. 간다라 등 인도 지역의 불교 미술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불교 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진 표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각 지역의 장인들이 똑같은 조각을 복사한 것은 아니에요. 돌, 흙, 금속 등 사용하는 재료와 제작 기술이 달랐고, 얼굴과 옷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장인들도 전해진 여러 표현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간다라 불상과 한국의 불상이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문화 교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옷 주름 하나가 비슷하다고 해서 특정 간다라 불상을 그대로 베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영향을 받으면서 새 모습이 생기는 것 역시 문화가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Q13 쿠산 왕조가 쇠퇴하면 불교와 불교 미술도 함께 사라지나요?

답

아니에요. 왕조의 힘이 약해져도 여러 지역의 신자와 사원, 승려와 장인들이 가르침과 미술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쇠퇴는 힘이나 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말해요. 쿠산 왕조는 3세기 이후 세력이 약해졌지만, 그때까지 이루어진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간다라 지역에서도 그 뒤 여러 세기 동안 불교 미술 활동이 이어졌어요.

이미 다른 지역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사원이 생겼다면 그곳의 왕이나 신자가 후원할 수 있었어요. 승려들은 가르침을 전하고, 장인들은 불상을 만들면서 새로운 표현을 더할 수 있었지요. 불교와 불교 미술이 쿠산 왕 한 사람의 활동에만 매여 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나 후원의 감소로 사원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한 왕조의 쇠퇴를 모든 지역의 불교가 사라진 일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왕조의 역사와 종교·문화가 이어지는 역사는 서로 연결되지만, 항상 같은 때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 문제

확인 0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마우리아 왕조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왕은 ㉠ _____ 이고, 쿠산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며 불교를 후원한 왕은 ㉡ _____ 이에요.

확인 02

쿠산 왕조의 교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중국과 로마를 정복하여 두 지역의 교역을 직접 맡았어요.
- ② 여러 교역로의 길목에서 물건과 문화의 교류에 참여했어요.
- ③ 비단길을 따라 비단만 거래하며 다른 물건은 옮기지 않았어요.
- ④ 한 상인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직접 가는 방식으로만 거래했어요.

답

확인 03

카니슈카왕과 불교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석가모니와 같은 시대에 살며 불교의 첫 가르침을 만들었어요.
- ②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에게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렸어요.
- ③ 대승 불교를 직접 만든 뒤에 그 가르침을 백성에게 내려 주었어요.
- ④ 불교 활동을 후원하여 가르침과 불교 미술의 발전을 도왔어요.

답

확인 04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대승의 ‘큰 수레’는 (큰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 / 많은 중생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뜻)을 나타내는 비유예요.

확인 05

대승 불교의 보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다른 중생의 구제도 돕는 존재예요.
- ② 수행을 대신해 주어 신자가 자신의 행동을 닦을 필요가 없게 해요.
- ③ 자신의 해탈을 위해 다른 존재의 괴로움은 외면하는 존재예요.
- ④ 깨달음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재물만 나누어 주는 존재예요.

답

확인 06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의 비교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상좌부는 수행을 강조하므로 다른 존재를 돕는 자비를 가르치지 않아요.
- ② 대승은 중생 구제를 강조하므로 수행자가 지킬 계율을 인정하지 않아요.
- ③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흐름 모두 수행과 남을 돕는 일을 중시해요.
- ④ 두 흐름은 전파된 지역이 다르므로 서로 만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었어요.

답

확인 07

초기 불교 미술의 상징 표현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사람 모습의 불상이 없으면 불교 신앙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 ② 법륜과 발자국은 그리스 신을 나타내려고 사용한 모습이에요.
- ③ 상징을 썼다는 사실은 모든 불교인이 불상을 금지했다는 증거예요.
- ④ 보리수와 법륜으로도 부처와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답

확인 08

사람 모습의 불상이 발달한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간다라에서 시작한 불상은 다른 지역의 조각 전통과 관계가 없었어요.
- ② 신앙과 후원, 장인의 기술과 지역의 조각 전통이 함께 작용했어요.
- ③ 대승 불교에서 불상을 사용했으므로 상좌부 불교에는 불상이 없어요.
- ④ 그리스인 한 사람이 부처를 직접 보고 조각하면서 모든 불상이 생겼어요.

답

확인 09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과 간다라 미술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알렉산드로스가 카니슈카왕에게 불상 제작을 직접 명령했어요.
- ②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때문에 인도에 불교라는 종교가 처음 생겼어요.
- ③ 원정 뒤 이어진 그리스계 문화가 훗날 간다라 미술의 배경이 되었어요.
- ④ 원정 뒤 그리스계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 지역의 조각 전통도 사라졌어요.

답

확인 10

간다라 불상이 문화 융합의 사례인 까닭을, 불교 신앙과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을 모두 넣어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확인 11

대승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해진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승려와 상인 등의 이동에 현지 사람들의 수용과 후원이 더해졌어요.
- ② 쿠산 왕조가 중국과 한반도를 정복하여 불교를 함께 전했어요.
- ③ 카니슈카왕 한 사람이 중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전했어요.
- ④ 경전을 가져가기만 하면 언어가 달라도 번역 없이 모두 이해했어요.

답

확인 12

간다라 불상과 한국 불상의 모습이 다른 까닭으로 맞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국의 불교 미술은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겼기 때문이에요.
- ② 불상이 전해진 지역에서는 이전 지역의 특징을 모두 없앴기 때문이에요.
- ③ 서로 다른 종교를 나타내므로 불교 미술 사이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 ④ 전해진 표현이 각 지역의 재료와 기술, 미술 전통을 만나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답

확인 13

쿠산 왕조의 쇠퇴와 불교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왕의 지원이 줄자 불교가 전해진 모든 지역의 신앙도 바로 끝났어요.
- ② 왕조가 약해져도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후원자가 불교를 이어 갈 수 있었어요.
- ③ 쿠산 왕조가 약해진 뒤에는 간다라 지역에서 불교 미술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④ 한 왕조가 후원한 가르침은 그 왕조의 영토 안에서만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답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과 해설

정답 ㉠ 아소카왕 / ㉡ 카니슈카왕

아소카왕은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고, 카니슈카왕은 2세기 쿠산 왕조의 왕이에요. 둘 다 불교를 후원했지만 같은 왕조의 왕이거나 바로 앞뒤로 왕위를 이은 사이는 아니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은 ‘아소카’, ㉡은 ‘카니슈카’라고 써도 돼요.

다시 읽기 Q01·Q03

확인 02 정답과 해설

정답 ②

쿠산 왕조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북부를 잇는 길목을 차지했어요. 여러 교역로가 연결되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도 물건과 문화가 오갈 수 있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중국과 로마를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교역으로 연결된 범위와 한 왕조가 지배한 영토는 달라요.
- ③이 아닌 이유 비단길에서는 비단뿐 아니라 여러 물건이 오갔어요. 길의 이름이 거래 품목을 비단으로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 ④가 아닌 이유 물건은 여러 지역의 상인을 거치며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한 상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가야만 교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3 정답과 해설

정답 ④

카니슈카왕의 후원은 승려의 활동과 불교 미술의 발전을 도왔어요. 대승 불교를 왕이 혼자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후원과 가르침의 형성을 혼동하게 돼요.

- ①이 아닌 이유 석가모니는 카니슈카왕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살았어요. 카니슈카왕이 불교를 처음 만든 것도 아니에요.
- ②가 아닌 이유 두 왕은 서로 다른 왕조에 속하며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아소카왕에게 왕위를 바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 ③이 아닌 이유 대승 불교는 불교 공동체의 활동 속에서 성장한 흐름이에요. 왕이 가르침을 직접 만들어 내려 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1·Q03

확인 04 정답과 해설

정답 많은 중생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뜻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여러 중생을 함께 태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데려간다는 비유이며, 교통수단의 크기나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4

확인 05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대승 불교에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다른 중생의 구제도 돕는 존재예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②가 아닌 이유 보살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실천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에요. 대승 불교도 마음과 행동을 닦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 ③이 아닌 이유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중생 구제를 돕는 보살의 뜻과 맞지 않아요.
- ④가 아닌 이유 재물을 나누는 일도 도움의 한 모습이지만, 보살의 길에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돕는 뜻이 포함돼요. 재물을 나누는 일로만 한정할 수 없어요.

다시 읽기 Q04·Q05

확인 06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상좌부 불교의 개인 수행과 대승 불교의 중생 구제는 교과서가 비교하는 강조점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수행이나 자비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 ①이 아닌 이유 상좌부 불교도 자비와 나눔을 중요하게 여겨요. ‘개인의 해탈’은 남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 ②가 아닌 이유 대승 불교에도 수행과 계율이 있어요. 중생 구제와 자신의 실천은 함께 중요해요.
- ④가 아닌 이유 대표적인 전파 지역이 다르다고 두 흐름이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역 구분은 복잡한 전파 과정을 간추린 것이에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7 정답과 해설

정답 ④

보리수나 부처의 발자국, 법륜 같은 상징으로도 부처와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사람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신앙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 ①이 아닌 이유 사람들은 탑과 여러 상징을 통해서도 부처를 기렸어요. 불상의 유무와 불교 신앙의 유무는 같지 않아요.
- ②가 아닌 이유 이 문항의 법륜과 발자국은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의 자취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 ③이 아닌 이유 상징 표현의 존재만으로 모든 지역의 불교인이 불상 제작을 금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읽기 Q07

확인 08 정답과 해설

정답 ②

불상 제작에는 신앙, 후원, 장인의 기술, 각 지역의 미술 전통이 함께 작용했어요. 대승 불교의 발전이나 그리스 미술의 영향 하나만으로 모든 불상의 탄생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 ①이 아닌 이유 간다라 불상에도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이 활용되었어요. 또한 마투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상이 발달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상좌부 불교에서도 불상을 사용해요. 불상의 존재만으로 대승 불교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 ④가 아닌 이유 모든 불상이 한 그리스인의 발명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부처를 사실적으로 조각했다는 말도 석가모니를 직접 보고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8·Q10

확인 09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원정 뒤 정착과 교류를 통해 이어진 그리스계 미술 전통은 훗날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어요. 원정과 간다라 불상 제작 사이에는 긴 시간 차이가 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두 사람은 같은 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카니슈카왕에게 직접 명령할 수 없어요.
- ②가 아닌 이유 불교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처음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계 미술 전통과 불교 미술의 만남이에요.
- ④가 아닌 이유 원정 뒤 그리스계 사람들이 정착했고 문화 교류가 이어졌어요. 군대나 왕이 떠났다고 조각 전통까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9

확인 10 정답과 해설

예시 답 간다라 불상에는 인도의 불교 신앙과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처라는 불교의 대상을 나타내면서 입체적인 얼굴과 몸, 자연스러운 옷 주름 등의 표현을 활용했어요. 다른 문화의 요소가 만나 새로운 미술을 이룬 것이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불교 신앙과 그리스·로마 계통의 조각 표현이 ‘만났다’ 또는 ‘결합했다’는 뜻이 있으면 맞아요. ‘불교의 부처를 그리스·로마 계통의 입체적인 조각 표현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에요’라고 써도 돼요. ‘그리스 미술이 더 우수했기 때문’이나 ‘불교 대신 그리스 신을 믿었기 때문’은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9·Q10

확인 11 정답과 해설

정답 ①

교역로를 따라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의 활동과 현지 사람들의 수용이 함께 작용했어요. 경전 번역과 사원 후원도 불교가 새로운 지역에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 ②가 아닌 이유 불교가 전해진 지역 전체가 쿠산 왕조의 영토였던 것은 아니에요. 종교 전파와 정복을 구분해야 해요.
- ③이 아닌 이유 여러 사람과 지역이 오랜 시간 교류한 결과예요. 한 왕의 방문으로 모두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 ④가 아닌 이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경전을 번역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다시 읽기 Q11

확인 12 정답과 해설

정답 ④

각 지역의 장인들은 전해진 표현을 자기 지역의 재료와 기술, 미술 전통에 맞게 활용했어요. 영향을 받았어도 모두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 ①이 아닌 이유 한국의 불교 미술도 중국 등을 통해 전해진 표현을 받아들였어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이 교류가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 ②가 아닌 이유 이전 표현을 모두 없앤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남아 있는 특징과 새로 더해진 특징을 함께 볼 수 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두 지역의 불상은 모두 불교의 대상을 나타내요. 모습의 차이만으로 종교적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3 정답과 해설

정답 ②

불교가 여러 지역에 자리 잡으면 그 지역의 공동체와 후원자가 가르침과 미술 활동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왕조의 쇠퇴와 모든 지역의 불교 소멸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 ①이 아닌 이유 한 왕조의 지원이 줄어도 다른 왕과 신자들의 후원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모든 지역의 신앙이 즉시 끝난 것은 아니에요.
- ③이 아닌 이유 쿠산 왕조가 쇠퇴한 뒤에도 간다라 지역에서 불교 미술 활동이 이어졌어요.
- ④가 아닌 이유 가르침과 미술은 교역과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왕조의 영토 밖으로도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3

대치동 재우쌤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